제3강
천재론

Larousse 불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génie’는 ‘탁월한 특성을 지닌 사물들이나 개념들을 생각해내거나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타고난 정신적 재능’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재능을 지닌 개인’을 뜻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천재(불: génie, 독: Genie, 영: genius)란 이와 같이 탁월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비범한 재능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천재 개념에 있어서 핵심 질문은 이러한 비범한 능력이 타고난 것인지(ingenium), 아니면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것인지(studium)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플레이야드파와 같은 프랑스 고전주의자들은 타고난 특성(ingenium)과 학습(studium)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들은 시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요소를 타고난 본성(le naturel)과 이론(le doctrine)으로 구분하면서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론을 향한 노력, 즉 학습(studium)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본성 없는 이론보다 이론 없는 타고난 본성이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도 역시 인정했다.

프랑스 고전주의자들이 ingenium과 studium 사이에서 갈등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예술 모방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타타르키비츠는 <타타르키비츠 미학사. 근대 미학>에서 고전적 미학의 주요원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고대인들은 예술의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했다. 질서, 척도, 합리성과 미의 관점에서 고대인의 작업은 자연보다 완전했기에 이후 모든 예술의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플레이야드파에 속하는 펠레티에는 자신의 저서인 <시 예술(Art poétigue)>(1555)에서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시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1) 통속적인 것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을 모방할 것, 2) 고대인을 모방할 것, 3) 모든 장르의 시를 실습할 것, 4) 언어를 풍부하게 할 것. 그리고 그는 이 네 가지 원칙을 ‘독창적인 모방’이라는 하나의 표어로 요약한다. 후에 프랑스 고전주의자 중 한명인 뒤보스(Jean-Baptiste Dubos)는 타고난 특성(ingenium)과 학습(studium)이라는 상충되는 문제들을 하나로 종합시킨 형태의 천재관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천부적인 소질을 지닌(ingenium) 한 사람이 오랜 기간 자신을 연마함으로써(studium)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독일 계몽사상가 중 한 명이었던 레싱(Gotthold Ephraim Lessing)은 모방예술론으로부터 벗어난 천재관을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천재란 자연의 표면을 그저 모방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내적 연관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만일 천재가 자연을 모방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천재는 창조한다. 하지만 천재의 창작은 단순히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고 레싱은 보았다. 칸트의 천재론은 이처럼 자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창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다.

***칸트와 천재**

칸트에 의하면, 자연의 미는 예술작품의 미보다 항상 우월하다. 따라서 예술작품은 자연물과 닮아 보여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닮아 보인다’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술작품이 인

간의 산물이라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보여야만 한다는 것을, 즉 의도적이되 의도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lso muss die Zweckmässigkeit im Produkte der schönen Kunst, ob sie wzar absichtlich ist, doch nicht absichtlich scheinen."(*Kritik der Urteilskraft*, p. 180-181.)
("그러므로 순수예술의 결과물 속에서 합목적성은 비록 그것이 의도적일지라도 의도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칸트에게 있어서 자연물을 닮은 예술작품, 즉 규칙에 합치하되 규칙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예술작품은 오직 천재에 의
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순수예술은 필연적으로 천재의 예술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schöne Künste notwendig als Künste des Genies betrachtet werden müssen)."(*Kritik der Urteilskraft*, p. 181.) 그런데 자연물을 닮은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천재의 능력 혹은 소질은 바로 자연으로부터 온다:

"Genie ist das Talent (Naturgabe), welches der Kunst die Regel gibt. Da das Talent, als angebornes produktives Vermögen des Künstler, selbst zur Natur gehört, so könnte man sich auch so ausdrücken: Genie ist die angeborne Gemütsanlage (ingenium), durch welche die Natur der Kunst die Regel gibt."(*Kritik der Urteilskraft*, p. 180-181.)
("천재는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재능(천부의 자질)이다. 이 재능은 예술가의 타고난 생산 능력으로서 그 자체가 자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천재는 타고난 기질(천성)인데, 이러한 타고난 기질을 통해 자연은 예술에 규칙을 부여한다.")

칸트에 의하면, 자연물을 닮은 예술작품은 이미 확립된 규칙을 충실하게 고수하고 따름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규칙은 모든 예술작품에 대해 타당해야만 한다. 요컨대, 자연물을 닮은 예술작품은 규칙을 담고 있되,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천재의 독창성이란 규칙을 고수하되 동시에 그 규칙을 확장하는 능력, 즉 규칙을 자유롭게 산출하는 능력을 뜻한다.

***천재와 광기**

> "천재는 정해진 궤도를 지키며 도는 행성이 아니라, 궤도를 잃고 지구 표면에서 산산이 흩어지는 유성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체자레 롬브로조

그런데 예술가를 규칙을 자유롭게 산출하는 천재로서 규정한 칸트는 천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품을 창조하는지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독일 계몽사상가인 빌란트(Christoph Martin Wieland)는 예술가를 신에 버금가는 창조자, 즉 신적 창작을 행하는 자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신적 창작의 근원을 광기를 통해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빌란트는 열광(Enthusiasmus)과 도취(Schwärmerei)를 구분하는 가운데, 천재의 신적 창작이 플라톤이 말하는 신성한 광기(mania 또는 enthousiasmos)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체자레 롬브로조(Cesare Lombroso)는 그의 저서인 <미쳤거나 천재거나>(1888)에서 천재광기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천재성이 유전적 정신병의 형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롬브로조는 천재들의 정신병적 성향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에 의하면, 천재들의 공통된 특징은 매우 대비되는 성격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오락가락하며 자의식과 자부심이 강하면서 매우 이른 나이에 기괴한 방식으로 천재성을 드러낸다는 것에 있다.

***쇼펜하우어와 천재의 광기**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표상의 세계와 의지를 구분한다. 즉 표상의 세계의 배후 혹은 피안에 의지(Wille)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단일한 의지가 어떻게 구체적인 개별자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일까? 그것은 이념들의 매개를 통해서이다. 이념들은 사물들의 영원한 형식들이며,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별화의 원리와 인과법칙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충족 근거율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 충족 근거율의 원리하에서 기능하는 학문적 탐구는 표상의 세계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 있을 뿐 물자체로서의 의지나 이념들을 인식할 수 없다. 반면에, 이념들과 의지에 접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이념에 대한 인식은 미적 인식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미적 인식을 '미적 관조(ästhetische Kontemplation)'라고 부른다. 미적 관조란 충족 근거율, 인과법칙, 공간, 시간으로부터 해방되어 이념들을 파악하는 인식이다. 그런데 미적 관조 속에서 주관은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며, 그와 더불어 의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념을 인식하는 미적 관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미적 관조는 천재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가능하다. 천재란 대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의지 없는 순수한 관조를 통해서 이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이념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서 타인들에게 전달하는 자이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천재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념을 파악할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미적 경험은 특별한 재능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단지 잠재적으로만 갖고 있을 뿐 실현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충족 근거율에 매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인식은 결국 의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천재는 미적 관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재능이 없으며, 광기(Wahnsinn)에 사로잡히며,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을 삶을 살아간다. 천재는 스스로를 미적 관조 속에서 잃어버리는 능력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미적 관조 속에서 천재는 탈-주관화 혹은 탈-개별자화한다. 미적 관조 속에서 이념을 바라보는 눈은 나의 눈(mein Auge)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세계눈(Weltauge)'이다. 천재가 충족 근거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천재가 수학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천재가 미적 관조를 통해서 수행하는 인식은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인식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천재는 미적 관조 속에서 이성적인 것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광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족 근거율에 종속당한 상태에서 의지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보며 살아간다. 반면에, 천재는 자신을 위해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천재는 충족 근거율과 의지에 지배당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